

## 존 카푸토의 포스트모던 해석학과 해석적 실천으로서의 ‘약한 신학’ 연구

이윤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몸말

1. 전통 해석학에서 포스트모던 해석학으로
2. 전후기 하이데거의 해석학에 숨어 있는 포스트모던 해석학의 단초들
3. 가다머의 『진리와 방법』은 방법에 반대하는 진리이다
4. 데리다의 해체주의는 포스트모던 해석학이다
5. 해석적 실천으로서의 ‘약한 신학’

### III.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9.44.12>

---

• ABSTRACT •

---

A study on John D. Caputo's postmodern hermeneutics and  
'weak theology' as an interpretative practice

Lee, Yoon Il (Professor,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This paper investigates John Caputo's postmodern hermeneutics and his 'weak theology.' Postmodern hermeneutics defends the idea that there are no pure facts. Behind every interpretation lies another interpretation. Interpretation goes all the way down. Postmodern hermeneutics asserts the endless questionability(interpretability) of our lives. In postmodern hermeneutics, every act of understanding is already an interpretation, not only in the humanities but also in the natural sciences, not only in the academic disciplines but in everything we do in daily life. Postmodern hermeneutics is a radical hermeneutics. It means that we have to take the point of view of the outsiders, the ones whose views have been neglected or excluded. In Caputo's weak theology, The god is not taken Devine Providence but as event. The god is taken as the promise of the future, as the very possibility of inventiveness. The name of God is a nickname for hope. The name of God is an envoy, an icon of call to interpret the endlessly reinterpretable.

**Key words:** John D. Caputo, Postmodern Hermeneutics, Heidegger, Gadamer, Derrida, Weak Theology

---

## I. 들어가는 말

슬라이어마허, 딜타이로 대표되는 전통 해석학과 그 이후 전개된 포스트모던 해석학은 여러 면에서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그 차이점을 간략히 지적하자면, 포스트모던 해석학에서 해석학은 하나의 참된 텍스트의 의미를 발견하는 방법에 한정되지 않는다. 해석은 끝이 없이 수행되는 것이다. 모든 해석은 항상 도래할 해석에 노출되어 있다. 포스트모던 해석학에서는 해석의 외연이 인문학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삶의 전 영역에 미친다고 본다. 또 포스트모던 해석학은 지금까지 우리가 등한시하거나 배제해왔던 국외자, 외부인, 주변부의 관점을 중시하고, 동일성보다는 차이를 강조한다. 이 글은 존 카푸토의 최근 저작 『해석학』(2018)을 중심으로 이런 특징을 지닌 포스트모던 해석학의 성립 과정과 그 성격을 규명하고, 포스트모던 해석학의 한 해석적 실천인 카푸토의 약한 신학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나는 먼저 하이데거, 가다머, 데리다의 해석학이 이미 포스트모던 해석학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카푸토의 주장을 정리하고, 그 한 해석적 실천으로서 카푸토의 약한 신학이 포스트모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종교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몸말

### 1. 전통 해석학에서 포스트모던 해석학으로

현대 유럽 대륙 철학의 중요한 방법론으로서 현상학과 더불어 쌍벽을 이루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해석학이다. 주지하다시피 원래 해석학은 성서 해석학, 문헌 해석학에서 출발하였으나, 슬라이어마허에게 와서 해

석 방법 일반에 관한 이론으로 확립되었다. 슐라이어마허에게 해석학은 이해 기술론(Kunst des Verstehens)으로서, 이 기술론은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실천적 행위, 올바른 해석의 실천을 의미하였다.<sup>1)</sup> 그 뒤에 해석학을 굳건한 철학적 방법론으로서 정초한 철학자는 빌헬름 딜타이이다. 딜타이의 해석학은 19세기 말 위기에 처한 철학의 자기 정체 확인 작업에서 비롯되었다.<sup>2)</sup> 주지하다시피 근대에 들어 철학의 권위를 뒤흔드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난다. 그것은 그때까지 자연 철학이라고 일컬어져왔던 철학의 한 분야가 뉴턴 물리학이라는 이름으로 분가한 사건이다. 자연에 관한 연구는 이제 자연과학자들의 몫으로 넘어갔으며, 철학은 그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정신의 영역을 움켜잡고 자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자연과학이 분가에 만족하지 않은 채, 정신의 영역을 자기들의 학문 영역으로 편입시키려고 끈질기게 도전해 왔다는 점이다. 자연과학의 눈부신 발전은 역사, 예술과 같은 인문과학 또는 정신과학의 문제까지도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경향을 낳았던 것이다. 철학은 이에 맞서서, 철학을 자연 과학과 대립되는 정신과학으로 규정하고, 정신과학의 방법론은 자연 과학의 방법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신칸트학파의 철학과 딜타이로 대표되는 해석학이 바로 그것이었다. 해석학의 완성자 딜타이는 이런 배경 하에서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을 대립시키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우리는 자연을 설명하고 정신생활을 이해한다.”<sup>3)</sup> 정신과학을 이해하는 방법론이 바로 해석학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해’라는 개념은 딜타이에게 와서 자연과학과 대립되는 역사, 철학, 예술 등을 탐구하는 독자적인 방법적 개념으로 확립되기에 이른다. 그 후 인문학자들은 당당하게 자기들의 학문

1) Coreth, Emerich, *Grundfragen der Hermenutik*, (Freiburg : Herder, 1969), 26-27.

2) 이윤일, 『현대의 철학자들』, (서울: 선학사, 2002), 25-27.

3) Coreth, Emerich, *윗글* 28-29.

영역을 옹호할 수 있게 되었다. 인문학에도 자연과학 못지않은 방법이 있어서 진리와 객관성에 도달할 수 있지만 그 방법은 다르다는 것이다. 자연과학은 수학적으로 측정 가능한 현상을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반면, 인문학에서 우리는 비수학적 의미를 가진 현상인 예술 작품이나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적 이해에 도달한다. 인문학은 다르기는 하지만 자체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전통 해석학의 방향을 바꾼 두 가지 상황이 출현하였다. 첫째, 포스트모던 철학자들은 모든 이해의 행위는 인문학에서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강단 학문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것이 이미 하나의 해석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둘째, 이들은 자연과학이 선호하는 방법은 오히려 진리를 찾는 데 결정적인 장애가 될 수 있으며, 방법보다는 해석이 더 유연하고 독창적인 과정임을 밝히려고 한다. 가령, 20세기 중반에 전개된 과학 지상주의에 대한 철학자들의 공격을 상기해보라. 과학적 변화와 지식의 성장은 선형적인 진보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급작스러운 패러다임의 변화와 혁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쿤의 주장, 이론-관찰 이분법에 대한 헨슨과 포이어아벤트의 반발 등은, 과학을 하는 데에도 상당히 많은 해석적 기술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론적 가설을 제안하는 것, 증거를 해석하는 것, 방법으로 처리되지 않는 변칙을 다루는 것에는 이미 우리의 선이해와 해석적 관심이 애당초부터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그럴 경우 과학이 금과옥조로 여겼던 객관성은 좋은 해석과 나쁜 해석이라는 말로 약화된다. 순수한 객관성이나 순수한 사실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존 카푸토는 해석학의 이러한 시대적 변천 과정을 숙지하고 소위 포스트모던 해석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sup>4)</sup>

첫째, 해석학은 해석의 이론이다. 해석학은 모든 것이 해석의 문제라는 이론이다. 해석은 일차적 행위이고, 해석학은 그런 행위들에 대한 이차적 반성이다. 이때 해석에는 종착점은 없으며 해석은 끝까지 간다. 포스트모던적 해석학적 상황은 인생에 대한 끝없는 질문 가능성, 우리 삶의 끝없는 해석 가능성을 불가피한 것으로 상정한다.

둘째, 포스트모던 해석학은 해석의 외연이 인문학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삶의 전 영역에 미친다고 본다. 그 외연의 확장은 이미 하이데거의 해석학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해석학은 독백이나 비판이 아니라 대화를 탐구 모델로 삼는다. 그 중에서 가다머의 해석학은 가장 탁월한 대화의 해석학이다.

셋째, 포스트모던 해석학은 데리다 류의 해체주의도 해석학의 한 변형으로 받아들인다. 데리다가 말하는 해체는 우리의 모든 신념과 실천이 끝없이 재해석될 수 있다는 데 있기 때문이다. 데리다에게 있어서도 해석은 끝이 없이 수행된다. 더 나은 해석과 더 나쁜 해석이 있을 뿐이다. 다만 데리다의 해체는 해석을 더 깊이 밀고 나가 고지식하게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엄밀성을 지향한다.

넷째, 포스트모던 해석학은 근본(radical, 급진) 해석학이다. 근본 해석학으로서의 포스트모던 해석학은 지금까지 우리가 등한시하거나 배제해 왔던 국외자, 외부인, 주변부의 관점을 중시하고, 동일성보다는 차이를 강조한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탈중심화되어 있고, 다중점적인 포스트모던 문화적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헤르메스에 대한 전통 해석 중에서 얽잡힌 전령보다는 더 짓궂고 장난꾸러기 같은 헤르메스의 모습을 강조하면서, 해석도 다양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4) Caputo, J. *Hermeneutics: Fact and Interpretation in the Age of Information*, (UK : A Pelican Books, 2018), 3-21.

그러면 카푸토가 그 자신의 하이데거, 가다머, 데리다의 해석을 통해 이런 포스트모던 해석학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자.

## 2. 전후기 하이데거의 해석학에 숨어 있는 포스트모던 해석학의 단초들

카푸토는 전후기 하이데거가 기본적으로 포스트모던 해석학의 단초를 마련해 준 철학자라고 주장한다.<sup>5)</sup> 그 요지는 해석학의 외연을 인문학에 한정하지 않고 삶의 전 영역으로 확대시킨 데 있다는 것에 있다. 먼저 하이데거가 보기에 근대성 속에서 슬라이어마허와 딜타이로 대표되는 전통 해석학은 변질되고 말았다. 근대성 속에서 해석학은 인문학의 방법을 제공하는 시시한 방법론적 반성으로 축소되고, 구체적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역사적 존재자가 하잘 것 없는 ‘의식’, ‘사고하는 동물’, 유리된 ‘비판적 자아’로 퇴화하였다는 것이다.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이런 전통 해석학에 대한 비판은 이미 『존재와 시간』이 나오기 이전인 그의 프라이부르크 시절부터 시도된다. 당시 하이데거는 소위 ‘현사실성의 해석학(the hermeneutics of facticity)’이라는 제하에서 일련의 강의를 펼쳤는데,<sup>6)</sup> 이때 현사실성은 우리가 산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사는가라는 구체적 경험의 사실을 의미하였다. 이것이 해석학인 이유는 ‘현사실적’이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이데거에게 해석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세계를, 세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같이-있음’을 해석하는 문제이다. 해석은 우리의 세계-내-존재의 배경을 조정하고, 우리가 세계에 조율되는 방식을 조율한다. 그에게 해석은 세계가 어디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 거주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세계-제작이

5) 앞글, 25.

6) 앞글, 30.

다.

그리하여 하이데거는 순전한 독해 기술로서의 방법론적인 의의만을 가지고 있었던 종래의 해석학적 순환을 존재론적 순환으로 가공하고, 인간이라는 말을 현존재라는 표현으로 바꿔치고, 선-이해와 더불어 세계와 우리 자신이 이미 해석되어왔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해석학에서 우리는 미리 포장된 해석을 보류해야 하며,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 존재에 대해서 심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해석학이 순수하고 영원한 무역사적 본질을 찾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송된 역사적 실존의 가장 깊은 뿌리까지 파내려가는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면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의 내용을 되풀이하지는 않겠다. 그 대신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존재와 시간』에서 사용된 기본적인 해석학적 도식들이, 개인과 사회, 인문학과 자연 과학 등 전 영역에 걸쳐 유효하다는 점이다. 현존재의 실존적 시간성의 순환 역학은 해석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존재의 시간성은 현존재의 역사성의 토대이다. 현존재의 역사성(Geschichtlichkeit)은 현존재의 역사 기술의 기초, 즉 역사적 해석의 토대가 된다. 하이데거에게 역사적 탐구란 실제로는 우리 같은 역사적 존재자를 그 시원적 힘으로 노출시킴으로써 그를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역사 연구는 실존적으로 살아가는 탐구자들에게 대한 탐구인 것이지, 먼지 풀풀 나는 기록 보관서를 파헤치는 무정하고, 현실에 유리된 사람들에 대한 탐구가 아니다. 이것은 하이데거의 해석학이 인문학의 '방법'(빌헬름 딜타이)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인문학의 실존적 진리를 이해하는 방법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카푸토가 보기에 이런 이해는 하이데거의 자연과학의 해석학에서도 발견된다.<sup>7)</sup> 하이데거에게 하나의 해석은 사물들이 현재 그대로의

모습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지평에 투사된다. 가족의 탁자는 탁자로서 나타난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사실적 삶의 세계나 지평 내에, 그것의 독특한 존재 양태의 틀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각 연구 분야들은 저마다 그 영역 속의 대상들을 현상시키는 지평을 설정하거나 고정시키는 해석적 틀(하나의 ‘존재 이해’) 내에 놓여 있다. 이것이 인문학에서도 자연과학에서도 모두 일어나고 있으며 그 결과 하이데거의 해석학에서는 양 학문 간의 뚜렷한 구분이 약화된다. 자연과학적 사유는 지평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것은 그저 다른 지평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사물들을 수학적 측정 가능성의 지평 위에 투사시킨다. 일상성이라는 초기 설정을 중단함으로써, 탁자는 하나의 가구가 됨으로부터 이동하여 시공망의 어느 한 지점에 위치한 측정 가능한 질량으로서 생각된다. 하이데거에게 과학은 무언가를 ‘행하는’ 것으로서, 실험하고 측정하고, 이론과 실천 간의 구분을 만들어 내기도 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세계-내-존재자의 한 실천 양태이다. ‘가치에서 자유로운’ 과학이라는 이념, 전제 없는 과학자라는 이념, 사심 없는 냉정한 정신이라는 이념은 위험한 신화이다.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는 근대성의 중추 원리인, 자연 과학과 인문 과학 간의 엄격한 구분을,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해서 과학적-합리적-객관적인 것과 비과학적-정서적-주관적인 것 간의 구분을 약화시킨다. 이 이분법은 어떤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질서와 그것의 있을 수 있는 분열 간의 해석학적 구분으로 대체된다. 하이데거의 해석학은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 합리적인 것과 비합리적인 것,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간의 이분법의 지배를 분쇄한다. 간단히 말해서 그것은 카푸토가 말하는 포스트모던 해석학인 것이다.

하이데거는 후기에 가서 현존재의 기투로 구성되는 존재 사건에서 존

7) 앞글, 57-62.

재 자체에로 사유의 방향을 선회한다. 이때 존재에 대한 여러 대응 표현으로 진리, 언어, 사건과 같은 용어들도 등장한다. 후기 하이데거에게 존재는 그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개인들이 생각하고 행위하는 방식에 침투하고 조건 지으면서 하나의 온전한 역사적 시기가 개시되는 방식으로, 더 심원한 진리 사건이다. 존재는 어떤 일정 시기에 존재자들 전체에 의해 채택된 세계 조망이다. 여기에 와서 '실존'은 더 이상 실존적으로 개성적 본래성을 추구하고 있는 존재자가 아니다. 이제 실존은 존재의 도래에 개방되어 있는, 탈 고정적으로 탈존함(ek-sisting ek-statically)으로 재기술된다. '현존재'도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거기 있음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을성 있게 존재가 드러나는 장소 또는 숲 속의 빈터인 '존재의 저편(thereof Being, das da des Seins)'에 있음을 의미한다. 현존재는 세계-내-존재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존재의 역사적 운동의 수용자로 변모한다. 인간은 존재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자의 자리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의 변화는 후기 하이데거가 해석학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꺼리게, 아니 거의 사용하지 않게 만들었다. 해석학도 주관성의 흔적에, 해석적 인간 주관에 오염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sup>8)</sup> 해석학에 지나치게 인식론적이고 인간학적이고 심리학적인 흔적이 들어 있다고 본 것이다. 그리하여 사르트르가 『존재와 시간』의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라고 주장했을 때, 하이데거는 『휴머니즘에 관한 편지』에서 『존재와 시간』은 인간이 아니라 존재에 관한 것이었다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후기 하이데거의 『휴머니즘에 관한 편지』는 오히려 『존재와 시간』에 달리붙어 있던 인간 주체성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쓴 글이다. 존재가 존재대로 있

8) 『존재와 시간』에서 해석학에 대한 하이데거의 근본적인 재고에 있어서조차, 해석은 우리의 선-이해를 우리가 이해하는 주관적 성취의 문제였다.

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체성을 놓아버리라고 말하는 것이다. 후기 하이데거가 인간 주체성의 요소가 암암리에 깃들인 존재의 ‘의미’, 존재 ‘질문’이라는 말을 기피하고 존재의 ‘진리’라는 말을 썼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카푸토는 후기 하이데거가 해석학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해석학의 또 다른 중요하고 실례라고 주장한다. 즉, 하이데거의 『휴머니즘에 관한 편지』는 하이데거가 『존재에 시간』에서 해석학적 폭력이라고 불렀던 것의 한 예로서 『존재와 시간』을 재해석한 것이라는 것이다.<sup>9)</sup> 거기에서 하이데거는 해석학적인 ‘로서’(as)의 스위치를 바꾸어서, 이 ‘로서’를 어떻게 인간이 기획하는가의 한 기능으로서 해석하지 않고, 존재가 선사되는 방식으로서(as) 해석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후기 하이데거의 존재의 부름은 시대들의 해석적 이해를 위한 부름 이상의 것도 이하의 것도 아니다. 존재의 부름은 해석학적 안목에 대한 부름이다. 이처럼 후기 하이데거의 해석학은 부름의 해석학으로서 해석학의 더 깊은 구조를 세상에 드러내 보인다. 따라서 카푸토가 보기에 『휴머니즘에 관한 편지』는 하이데거가 해석학이라는 말에 흥미를 잃었는지와는 상관없이, 해석학의 또 다른 차원에 대한 공헌이다.<sup>10)</sup>

### 3. 가다머의 『진리와 방법』은 방법에 반대하는 진리이다

카푸토에게 가다머의 해석학은 해석이 끝까지 수행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끝없는 대화의 철학이다. 후기 하이데거에 의해 의도적으로 도외시되었던 해석학이라는 말은 가다머에 와서 다시 복권되어 화려하게 부활한다. 흔히 가다머의 『진리와 방법』에 담긴 사상을 철학적 해석학이라고 한다. 그러나 책 제목에 ‘방법’이라는 말이 들어 있다고 해서 가다머가

9) 앞글, 80.

10) 앞글, 84.

역사가들이나 문학도들에게 그들의 작업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거나 방법론적 가르침을 주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거꾸로 가다머에게 방법이라는 말은 객관주의라는 부정적인 함의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일부 논평자들은 가다머가 책 제목을 방법에 반대하는 진리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비꼰다.<sup>11)</sup> 데카르트와 같은 근대 사상가들이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방법을 찾았다면, 가다머는 방법을 피하는 진리를 찾았다. 그 대신 가다머의 해석학은 인문학에서 일어나는 이해를 오해하는 데에 대해 경고한다. 그는 인문학 종사자들에게 자기들의 작업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고, 인문학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철학적 이해를 그들에게 제공하려는 것이다. 가다머에게 해석학 자체는 하나의 방법도 아니고 특수한 방법들을 감시하는 메타 방법론도 아니다. 그것은 다양한 인문학 분야에서 출현하는 진리에 대한 철학적 명상이다. 그런 점에서 철학적 해석학이 하는 일은 인문학자들이 이미 일차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2차적으로 그러나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이해와 함께 명료화하는 것이다. 해석학은 인문학에서 이해에 이르는 방법에 대한 철학이고, 거기에 성과가 달려 있는 진리이다. 『진리와 방법』은 예술 작품의 진리, 인간 과학의 진리, 언어 경험에 대한 해석학적 분석 등을 다룬다. 여기서도 그 내용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대신 이런 3부 구조를 통해 가다머가 철학적 해석학을 가지고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간단히 정리해보기로 하자.

가다머는 하이데거처럼 예술 작품을, 플라톤이 생각했듯이 그것을 실재에서 멀어진 상태로 만들고 있는 삶의 모방(미메시스)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대신에 그들은 예술 작품을 실재의 강화(intensification)로 본다. 예술 작품은 좁게라고 ‘미감적’ 응시의 예술적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진리

---

11) 앞글, 89.

사건이다. 하나의 예술 작품을 경험한다는 것은 진리의 세계, 세계의 진리로 들어서는 것이다. 미는 존재 진리의 작열, 세계 자체의 불꽃이다.<sup>12)</sup> 하나의 예술 작품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 작품이 일으킨 놀이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이다. 예술 작품은 형식적 속성들의 놀이가 아니라, 그 놀이를 경험하는, 그것의 진리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이 빨려 들어가는 자석의 중심지이다. 예술 작품 속에 깃들인 진리는 세계-개시의 진리, 삶의 형식의 진리, 세계-내-존재 양태의 진리, 오로지 그것만이 고유하게 열어줄 수 있는 진리, 그리고 나에게 다가온 실존적 진리이다. 하이데거와 마찬가지로 가다머에게 있어서도 예술 작품은 그 외에는 달리 접근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계를 개시한다.

예술 작품을 세계를 개시하는 존재 사건으로 볼 경우, 작가나 창작자의 주관성은 배제된다. 이런 주장은 술라이어마허의 해석학에 대한 가다머의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의 의도는 작품 해석을 위한 표준의 구실을 하지 못한다. 텍스트의 진정한 생명은 전적으로 작가의 죽음에 의존한다. 고전이 된 텍스트는 시대에 구애받지 않는, 작가의 원 의도에 제한되지 않는 텍스트들이다. 텍스트는 무기한으로 재해석될 수 있는 잠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역사 진리의 경험과 관련하여 가다머는 소위 지평 융합<sup>13)</sup>이라는 것을 통해 레오폴트 랑케의 객관주의적 관점에 반대한다. 역사적 진리는 순수한, 해석되지 않은 사실에 지나지 않는, 경험적 객관성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무전제성의 ‘이상’의 유혹에 빠져 모든 전제들을 불신하려는 경향, 순수한 객관성이라는 황홀한 엉덩이를 쫓아가려는 경향을 가다머는 ‘선입견에 반대하는 선입견’이라고 부른다. 가다머에게 지평 융합이란,

---

12) 앞글, 90-91.

13) 앞글, 102-104.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의 지평이, 그 차이로 인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과거의 지평과 만날 때 생겨난 섬광 속에서 역사적 이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처음에 이 둘은 충돌한 후, 곧 오해가 있다는 것이 없어지고, 과거와 현재 간의 거리가 메울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면, 나중에는 융합된다. 지평 융합을 통해 가다머는 역사적 연구에서의 진리 경험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지평 융합은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닌, 이전에 존재하지도 않았고 존재할 수도 없었던 것, 그러나 새로운 어떤 것, 제 3의 것이다. 그것은 전통의 확장을, 그곳에서 진행되는 진리-사건을, 전통 속에서 계속 나타나는 새로운 형상이나 모습을 보여준다.

진리 경험은 다른 것의 충격에서, 멀리 떨어진 과거로부터 우리에게 온,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의 충격에서 일어난다. 여기에서 대화의 모델이 중요한 방식에서 활동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전통과 대화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전제들을 의문에 붙이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가다머에게 담화, 대화 놀이, 담론의 유연성은 해석학의 중심적인 작동 모델이다. 여기서 가다머는 대화를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제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이해를 오해하는 것을 피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가다머는 역사적 진리와 관련하여 ‘영향사 의식(Wirkungsgeschichtebewusstsein)’을 이야기한다.<sup>14)</sup> 가다머에게 이것은 그 의식이 역사 속에 들어있고 그 의식이 이해하려고 하는 역사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그런 의식을 의미한다. 이것은 반성의 역설이다. 우리가 우리의 의식을 반성하려고 할 때마다, 반성하는 행위는 우리의 반성에서 빠져나가는 그 의식의 흐름에 다른 계기를 부가한다. 그런 점에서 전통은 결코 그냥 저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통은 처음

---

14) 앞글, 107.

부터 우리이고, 우리 존재의 부분이다. 우리는 거기에서 왔고, 또 우리는 전통이 우리에게 전해준 자원을 가지고 그것을 반성하고 있다.

한편 가다머는 궁극적인 해석학적 지평, 해석과 진리의 가장 깊은 구조는 언어라고 본다.<sup>15)</sup> 가다머에게 이것은 언어가 가장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의미에서 행위와 작품과 경험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가장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어 없이 그 어떠한 것도 이해되지 못할 것이다. 가다머는 정서(affectivity)가 선언어적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는 정서가 이해되기를 원할 때, 우리의 암묵적인 선-반성적 삶이 명확해지고 반성적이 되기를 원할 때, 이것은 언어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언어는 깔끔한 정의로 세계를 청소하고, 산뜻한 주장과 강력한 논증으로 애매한 것을 해명해주면서, 사실을 추적하는 명제와 논증 속에서 가장 잘 정돈된 형태에 이른다. 그러나 언어는 그것의 가장 깊고 풍부한 형식을 시와 같은 세계 창조적인, 세계 개시적인 언어 사건에서 갖춘다. 시는 우리가 거주하는 선-객관화된, 선-개념적인, 심지어는 선-언어적인 세계를 공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가다머는 언어가 경험의 궁극적인 지평이라는 것, 선-언어적인 것이 이해된다면 그것은 언어 안에서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가다머에게 해석학적 활동의 근본 모델은 끝없는 언어적 대화이다.<sup>16)</sup> 그리고 이것은 카푸토에게 가다머의 해석학이 끝없는 해석 가능성을 인정하는 포스트모던 해석학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4. 데리다의 해체주의는 포스트모던 해석학이다

보통 데리다의 해체주의는 전통 해석학의 한 타자로서 해석학에 대한

15) 앞글, 108.

16) 앞글, 110.

또 다른 도전인 것처럼 생각되어 왔다. 왜냐하면 해체주의의 창시자인 데리다는 해석학을 하나의 참된 텍스트의 의미를 발견하는 방법으로 취급하면서, 해석학을 그 전통적인 의미로 되돌려 보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카푸토는 해석학의 비판자인 데리다가, 보다 비판적인 해석학의 저자인 데리다로서 더 잘 이해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해체는 해석학이라는 말에 또 다른 차원을 가져다주면서 해석학에 대한 생산적 도전자 역할을 했으며,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해석학적 과정 자체의 일부분으로 편입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sup>17)</sup>

초창기 데리다의 작업은 텍스트의 엄밀 독해를 통해 텍스트가 은연중에 내분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 보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이것은 해석학적 순환에 큰 문제를 일으킨다. 전체(성서, 플라톤 등과 같은 텍스트)는 하나의 통일이 아니라 다수성으로 해체되기 때문이다. 엄밀한 재구성은 결국 해체가 된다. 데리다가 그렇다고 생각하던 앓는 간에, 암묵적이고 숨어 있는 전체를 해명하는 ‘엄밀 독해’라는 실천은 해석학적 실천인 것이다. 해체는 단순한 파괴가 아니다. 만일 해체가 고통을 준다면, 그것은 지독하게 엄밀한 텍스트 독해를 시도하여 텍스트가 그 자체와 불화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며, 이것은 나쁜 소식이나 오�히려 해석학적인 관점에서는 창조적인 시작이다. 그래서 카푸토는 해체가 반-해석학이 아니라 좀 더 급진적인 양태의 해석학이라고 보는 것이다.

데리다는 주저 『그라마톨로지에 대하여』(1967)에서 그의 ‘독해의 원리들’에 대해서 논의한다. 카푸토가 보기에 그것은 하나의 독해 이론이고, 독해 이론은 하나의 해석 이론이며, 해석 이론은 말 그대로 해석학인 것이다.<sup>18)</sup> 그런데 데리다는 독해 이론을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한다. 하나는

17) 앞글, 117.

일차적 독해인 재생산적 독해이고, 다른 하나는 이차적 독해인 생산적 독해 또는 비판적 독해이다. 일차적 독해는 작가의 의도를 존중해주는 독해로서 면밀한 주석과 재구성에 의해 진행된다. 일차적 독해는 원 텍스트에 대한 최소한의 명료성을 보장해주는 독해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차적 독해인 생산적, 비판적 독해이다. 생산적 독해는 작가의 의식적 의도에 대한 훌륭한 재생산일 수 없다. 그것은 작가가 말하려고 했으나 좀 불투명하게 말했던 것을 좀 더 명백하고 분명하게 정리하는 데 안주할 수 없다. 일차적 독해는 필요하기는 하지만 충분하지 못하다. 그것은 실제로 작가에 의해 이미 이해되었던 것의 이해에 충분히 도달한 것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텍스트 속에 감춰진 보다 깊은 상충점을 향해 나아가는 두 번째 ‘비판적’ 독해이다. 이것은 이 텍스트를 작가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세계로, 지금 우리를 둘러싼 세계로 드러냄으로써,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으로서 그 텍스트가 궁극적으로 속하게 될 미래에 드러냄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텍스트를 보호하는 독해를 넘어서, 우리는 텍스트를 위협에 빠뜨리는 독해를, 그것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독해를 필요로 한다. 이 두 번째 독해는 작가가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말하려는 것의 범위 바깥 쪽을 지나간다.<sup>19)</sup> 그것은 하이데거의 ‘파괴’ 또는 ‘해석학적 폭력’에 상당하는 것이다.

이제 데리다의 이런 두 독해 구분은 반복의 두 유형을 구분 짓는 데 활용된다. 같은 것의 반복과 다른 것의 반복이 그것이다. 따라서 헤르메스의 두 얼굴이 있는 것처럼, 두 종류의 해석학, 해석에 대한 두 해석, 안전 위주의 첫 번째 해석학과 모험적인 해석학이 있다. 카푸토에 따르면,

18) 앞글, 121.

19) 그런 점에서 여기에는 데리다가 가다머와 공유하는 특징이 있다. 그것은 가다머의 해석학에서 우리의 관점이 생산자로부터 수용자로 결정적으로 이동되었던 것처럼, 데리다도 우리의 관점을 창작자로부터 수용자로 이동시킴으로써, 수용자가 수용적(receptive)일 뿐만 아니라 재생산적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포스트모던 해석학의 핵심 교조이다.<sup>20)</sup> 첫째, 존중해주는, 이중적 주석의 양식으로, 같은 것, 원본의 재생산적인 반복이 있다. 첫 번째 종류의 반복은 대단히 건전하고 분별적이다. 이런 종류의 반복은 뒤쪽으로 반복한다. 그것은 이미 이야기되었거나 수행되었거나 만들어졌던 것으로 되돌아가서 그것을 반복한다. 그것은 모방을 통해, 이미 생산되었던 것의 재생산을 통해 배우는 도제를 위한 모델로서 소용이 된다. 이런 식의 반복에서 독창성은 하나의 실수로서, 원본에서 벗어난 잘못으로서 금지된다. 그런 반복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모방하기 위한 고정된 모델을 가지며, 탈선과 일탈을 감시할 규칙을 가진다. 그런 반복은 가능한 것의 반복이다. 반면, 두 번째 종류의 반복은 앞쪽으로 반복한다. 그것은 미래로 향하며, 새로운 무언가를 생산하려 한다. 두 번째 종류의 반복은 새로운 것에 끼어들어 그것을 돌파하고 그것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일에 경도된 혁신자를 위한 것이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의 반복이며,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는 점에서, 희망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서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서, 불가능한 것에 대한 사랑이라는 점에서, 매우 과격한 것이다.

데리다는 이런 두 반복을 보여주는 전형으로서 랍비와 시인, 루소와 니체, 후설과 조이스를 대비시킨다.<sup>21)</sup> 랍비, 루소, 후설은 첫 번째 반복의 대표자이고, 시인, 니체, 조이스는 두 번째 반복의 대표자이다. 신학에 입각한 랍비는 율법을 담고 있는 성서에 응답한다. 그리하여 그는 그 역사가 성서 해석의 역사인, 해석학의 신학적 기원 내에, 유대주의 신학 내에 서 있다. 이 해석은 경건하고, 겸손하며,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되는 성서의 가장 깊고도 무궁무진한 보물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20) 앞글, 131.

21) 앞글, 132-137.

반신학적인 시인은 그런 제약에 고통을 당하지 않으며, 전혀 복종할 기원도 가지지 않는다. 시인이 수행하는 해석학은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조정이 가능하며, 재생산적이라기보다는 생산적이고, 타율적이라기보다는 자율적이다. 첫 번째 반복의 한 유형인 루소식 해석은 일종의 유죄, 근원으로 돌아가려는 헛된 시도에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것은 ‘기원에 대한 향수’로 인해, ‘부재하는 기원의 상실된 현전 또는 불가능한 현전’ 때문에 고통 받는다. 실제로 기원이란 전혀 없었으므로, 그것은 사실상 하나의 환상이다. 해석학적 거리, 간격을 좁힐 수 없다는 슬픈 깨달음인 것이다. 그러나 향수의 슬픔을 안고, 잃어버린 기원, 잃어버린 자연 상태를 꿈꾸는 그런 첫 번째 확인이 슬프고, 루소적이라면, 두 번째 반복의 예인 니체적 해석은 즐거운 확인의 모습을 띤다. 이 경우에는 잃어버리고 한탄할 기원은 결코 없었으며, 해석은 자유롭고 조정이 가능하며 즐겁고 창조적이다. 니체적 해석은 진리의 취약성을 당연시한다. 그것은 메시아처럼 진리가 항상 올 것이라는 가정 위에서 새로운 진리들을 창조하려고 한다. 첫 번째 반복의 예인 후설적 해석은 역사를, 반복에 의해 변하지 않는 원본의 분명하고 완전한 재생산을 통해, 세대에서 세대로 단성적 의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제임스 조이스적 해석은 모호성에 중점을 둔다. 제임스 조이스는 어떤 언어 내에 있는, 그리고 다른 언어들 사이에 있는 시각적, 음성적, 의미론적 관계들을 이용하여, 또 연상과 두운, 재담과 말놀이를 이용하여, 새롭고 예측할 수 없는 효과들을 적극 생산해 낸다.<sup>22)</sup>

22) 그러나 여기서 테리다의 주장은, 둘 다 그대로 놔두었을 경우, 한 쪽은 다른 쪽만큼 무익하고, 이 둘은 다 반역사적이라는 것이다. 순수한 단성성의 요소를 유지하는 것은 단성성을 같은 것의 반복에 한정시키면서, 단성성에게서 역사를 풍부하게 하는 모호성을 빼앗아버리면서, 역사를 마비시키거나 메마르게 할 뿐이다. 마찬가지로 단성성의 여지를 얼마간 허용하지 않고는, 반복 작업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반복하거나 혁신할 것이 전혀 없게 될 것이고, 이는 창조적인 반복도 역시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데리다의 최종 주장은 해석이 항상 해석에 대한 두 해석들 사이의 공간에서 수행된다는 것이다. 첫 번째 해석이 끊임없이 수행되었다면, 전통은 죽어가고, 고착화되고, 새로운 것을 생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단 없는 중단만 있었다라면, 죽음은 불가피했을 것이고, 이번에는 완전한 소멸이 문젯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해석의 존재는 둘 간의 사이-존재(*being-between*)이다. 이것은 그 역사적 계보를 따라가 볼 때 해석이 항상 협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의 해석은 규칙적인 것과 불규칙적인 것, 공약 가능한 것과 공약 불가능한 것, 표준화된 것과 예외적인 것, 중심과 주변부, 동일자와 타자, 또는 후기 데리다가 표현하듯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조건적인 것과 무조건적인 것 사이의 공간에서 발생한다. 해석은 중재(*intervention*)로서 발생한다. 해석은 전통적인 것을 중재하는 사건이다. 데리다의 해체의 목소리는 해석학적 목소리보다 더 불경하다. 지평 융합을 향해 움직이는 가다머와는 달리, 데리다는 분산(*disjointedness*), 균열 또는 분열(*fission*) 또는 틈(*fissure*)의 모습을 선호한다. 데리다에게 하나의 텍스트를 보호하는 유일한 길은 그것을 모험에 뛰어들게 하는 데, 그것을 미래에 내보이는 데에 있다. 데리다가 걷는 길은, 안정, 통일, 질서, 의미, 현전, 본질, 통치 체제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는 채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미래로 열려 있기 위해서는 모든 경건한 해석은 시적인 불경에, 모든 질서는 창조적인 무질서에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두 해석 사이를 선택하는 문제도 아니고, 두 해석을 융합하는 문제도 아니다. 데리다에게 해석적 명령은 끝까지 간다.<sup>23)</sup> 이것은 카푸토가 역설하는 포스트모던 해석학의 중심 특징이다. 우리가 해석해 가야 한다는 부름이나 그 명령은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해석적 명령의 문제는 우리가 누구인지의 문제와, '인간' 존재의 문제와 같은 종류의 문

---

23) 앞글, 141.

제이다.

## 5. 해석적 실천으로서의 ‘약한 신학’

이제 카푸토는 포스트모던 해석학의 성립에 공헌한 여러 철학자들의 해석학적 사유를 소화한 후, 이를 그의 각별한 관심 영역인 신학에 적용시킨다. 먼저 카푸토는 오늘날 종교가 회멸되고 있는 참혹하고 부끄러운 상황을 직시한다.<sup>24)</sup> 한편에서는 여전히 종교적 진리를 빙자한 불관용과 폭력, 과학 부정, 원시적 미신이 난무하고 있고, 다른 극단에서는 종교인들의 편견에 코웃음 치며 종교를 전염병처럼 취급하는 멸시와 방관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카푸토는 우리가 구원을 위해 종교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를 그 자체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해석학이 거꾸로 종교가 가질 마지막 최선의 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먼저 카푸토는 유신론, 무신론, 불가지론 등과 같은 구분이 종교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에 관한 근대 논쟁의 소산이며, 쓸모 있기보다는 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폐기해야 할 어휘들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생각은 종교를 근대의 강력한 비판에 시달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 포스트모던적인 재해석을 부여하는 것이다.<sup>25)</sup>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종교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간의 근대적 분할을 해체하는 일이 시급하다. 세속주의는 종교가 하나의 환상이라는 규범적 주장이다. 세속주의(secularism)는 종교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신앙과 이성,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사실과 가치 등간의 순수한 분할을 가정하고 있는 또 한 번의 근대성이다. 세속주의는 종교가 공공광장에 나오는 것을 금하려고 할

24) 앞글, 275.

25) 앞글, 279.

때, 즉 일반적으로 공적 공간을 철저하게 중립화시키려 할 때 생겨난 것이다.<sup>26)</sup> 그러나 카푸토는 포스트모던 철학자로서 중립화된 공간, 전제 없는 출발, 사심 없는 구경이라는 그런 발상을 거부한다.

여기서 카푸토는 자신의 논변을 밑받침할 하나의 근거로서 소위 포스트-신학의 해석학적 단서를 제공하는 폴 틸리히의 신학적 무신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sup>27)</sup> 틸리히의 이 새로운 신학에서 고전적 유신론은 신화적인, 심지어는 반쯤 신성 모독적이고 불경스러운 하나의 실수이다. 그의 신학적 무신론은 신에게 이별을 고하는 신학 자체의 방식이다. 그것은 유신론적이지도 않고 무신론적이지도 않은, 종교적이지도 않고 세속적이지도 않은 어떤 것을 위해 문을 열어놓는 무신론이며, 신학의 끝이 아니라 시작인 무신론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전통적인 유신론/무신론이라는 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신학이다. 틸리히에게 신은 하나의 존재자가 아니다. 신은 무서운 존재자도 아니고 심지어는 존재자들의 목록의 꼭대기에 있는 최상의 존재도 아니다. 최고의 존재, 가장 지혜로운 분, 가장 실재하는 분 등, 아무리 많은 극상 표현을 우리가 붙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신을 한정적인 존재자로 축소시킨다. 틸리히에게 신은 초존재가 아니라, '존재자의 근거(the ground of being)', 모든 존재자의 가장 깊은 원천이자 토대이다. 개별적인 존재자들은 근거에서 왔다가 근거 뒤로 사라지지만, 근거 자체는 영원하고 무궁무진한 것이다. 신은 하나의 사물이나 초사물이 아니라, 만물이 그로부터 왔다가 그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다. 틸리히에게 있어서는, '존재 자체'가 '최상의 존재'를 대신하며, 그분의 신적인 의무를 덜어주는 것이다.

26) 카푸토는 찰스 테일러의 『세속의 시대』의 내용을 빌려 세속주의를 출현시킨 세 요인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째, 근대의 역사 인식을 대변하는 볼트만의 탈신화화 작업. 이것은 종교인이 성서에 관해 한 주장을 손상시킨다. 둘째, 현대의 다원주의. 셋째, 현대 과학이 밝혀낸 우주론.

27) 앞글, 287-291.

진정한 종교는 궁극적으로 가치 있는 또는 무조건적으로 가치 있는 그 무엇에 의해 사로잡히는 궁극적 관심의 문제라고 톨리히는 말한다. 무조건적인 것은 심오한 삶, 심오한 현실에 사로잡힌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문제되는 그 무엇을 긍정하는 곳은 어디서든 그리고 어디에서나. 모든 경험 속에 깃들여 있는 심오한 차원에 있으며, 경험의 한 특정한 영역에 있지 않다. 톨리히의 종교는 무조건적인 것의 종교이고, 그의 신학은 무조건적인 것의 신학이다. 무조건적인 것은 한 특수한 존재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성질이며, 그것이 현존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에 상징적 표현을 주는 어떤 조건들 하에 있을 때뿐이다. 무조건적인 것은 존재의 어떤 유한한 역사적, 조건적 양태 안에 있는-그리스나 유대, 서방이나 동방, 고대나 근대, 과학이나 예술, 남성이나 여성, 종교나 세속 안에 있는-존재의 무한한 깊이이다. 따라서 카푸토가 볼 때 우리의 과제는 무조건적인 것이 그 아래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그런 구체적인 조건 속에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무조건적인 것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톨리히의 무조건적인 것이라는 개념은 종교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이라는 이항 대립을, 그리고 주체와 대상처럼 근대성에서 규범화된 온갖 범주들을 와해시킨다.

그런데 카푸토가 보기에 톨리히의 신학과 데리다의 철학 간에는 친밀한 유사성이 있다.<sup>28)</sup> 이들은 모두 조건적인 것과 무조건적인 것을 구분하고, 무조건적인 개방성, 미래에로의 무제한적인 노출, 하나의 모험인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두 학자 간의 만남은 철학적·신학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실존적·경험적 측면, 무조건적인 삶으로 이끄는 무조건적인 것의 해석학에서이다. 무조건적인 가치를 지닌 무언가에 사로잡히고, 무조건적인 가치를 가진 무언가를 긍정하고, 실재의 궁극적 본성

28) 앞글, 297-299.

에 관한 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면에서 같은 것이다. 이 두 사람의 입장을 종합하게 되면, 이제 카푸토가 말하는 소위 ‘약한 신학’의 입장에 이른다. 그리하여 삼위일체 신학의 성령이 헤겔 형이상학의 절대 정신 속에서 지상으로 강림하고, 나아가서 틸리히의 존재의 근거에 내려앉은 후 데리다에게 와서 더 절감된 신학으로 변모한다. 이 기독교와 성령의 해체 역사를 바티모는 ‘약화(weakening)의 역사’라고 부르고, 카푸토는 ‘약한 신학(weak theology)’이라고 부르는 것이다.<sup>29)</sup> 만일 독실한 신자가 이것은 상실(loss)의 역사라고 불평한다면, 그 답은 이 상실에 아무 유감도 없으며, 이는 열심히 다이어트와 운동을 해서 몸무게를 10킬로그램이나 뺀 친구가 그 몸무게의 상실로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과제중의 형이상학적 신학을 생활에 맞는 모양으로 손질하는 존재론적, 현상학적, 해석학적 절감의 역사이다. 강한 신학의 역사를 통과해오면서 절감된 신학은 더욱 더 생생하고 활기차게 약한 신학의 모습으로 출현하는데, 그것은 더 깊은 믿음, 소망, 사랑에 눈을 돌리면서 과중한 무게의 초자연적 믿음과 종교의 강력한 제도적 관심을 버렸던 세계-내-존재의 필요에 맞는 모습인 것이다.

여기에 와서는 기독교의 계시도 달리 해석된다. 이제 카푸토에게 기독교의 계시가 계시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존재자들과 거주할 다른 세계가 아니라 세계-내-존재의 구체적 모습이 된다. 계시는 시공 밖에서 하늘로부터 온, 세계에 관한 초자연적 간섭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계시는 인류에게 비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죽을 자들이 결코 자체적으로 알아낼 수 없었던 신비를 여는 열쇠를 전달하는 초행위자의 행위로 생각되지 않는다. 대신에 계시는 삶의 한 모습을 드러낸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요구되는, 존재에로의 길로 침입해 들어가는 것이다. 해석학적

29) 앞글, 300.

관점에서 계시는 하늘의 간섭이나 초자연적인 폭로가 아니라 하나의 시적인 개시(disclosure)로 보여진다. 종교적 계시는, 신이 신의 이름으로서가 아니라 사건의 이름으로 대신 통치했다면 삶이 어떻게 보이게 되었을까를 보여주는 하나의 시학, 즉 비유와 역설, 놀라운 말씀과 잊을 수 없는 서사들의 성좌이다. 모든 문화는 자체적으로 독특하게 세계를 노래하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계시적 사건을 갖는다. 종교에 있어 종교적인 것은 교리와 신조, 정통과 이단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종교적인 것은 예술과 과학, 윤리학과 종교 등 도처에 있으며, 오히려 종교로 자처하는 것 속에서는 들어 있지 않다. 이것이 카푸토가 제창한 ‘약한 신학’이다.<sup>30)</sup>

### III. 나가는 말

지금까지 나는 포스트모던 해석학이 정립되는 과정과 그 해석학이 신학 영역에 적용되었을 때 나타난 카푸토의 약한 신학의 모습을 정리해 보여주었다.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요약하자면, 카푸토의 포스트모던 해석학에서 해석에는 중착점은 없으며 해석은 끝까지 간다. 다른 해석들을 없애버리는 최종 해석은 있을 수 없다. 포스트모던적 해석학적 상황은 인생에 대한 끝없는 질문 가능성, 우리 삶의 끝없는 해석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 끝없는 해석 가능성은 해석학적 순환이 보장해준다. 해석학적 순환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미 있는 곳으로, 우리를 우리로 만든 사태로, 우리 삶의 심층 구조로 다시 돌아간다. 우리는 항상 사태와의 이원초적 접촉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해석학은 정확히 바로 이 지점에 자리 잡고 있다. 즉, 우리가 세계와 접촉하는 바로 그 지점에, 우리가 세계 속에서, 세계에 의해, 세계와 더불어 관계 맺는 바로 그 지점에 자리

30) 앞글, 301-303.

잡고 있다. 그리고 해석학의 과제는 그것을 언어로 드러내어 보이게 하는데 있다.

한편 카푸토의 약한 신학에서 신은 비밀이 아니라 비밀의 상징이 된다. 신의 이름은 불가능한 것까지 포함해서 가능한 모든 것의 이름이 된다. 이때 신은 신의 섭리로서가 아니라 사건으로 여겨지는 신이다.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완성된 신이 아니라, 여느 약속처럼 위협에서 보호될 수 없는 미래의 약속으로서 여겨지는 신, 창조의 적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창조성의 가능성으로서 여겨지는 신, 해석적 창조성을 위협하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해석적 창조성을 긍정하는 존재로서의 신이다. 그럴 경우 카푸토의 약한 신학에서 성서는 항상 도래하고 있는 것인 희망의 노래로 재해석될 수 있으며, 신의 이름은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의 상징으로 남을 수 있다. 즉, 신의 이름은 갈망 저편의 갈망과 함께 우리가 갈망하는 그 무엇에 대한 대응 표현이 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이석 “후기구조주의의 종교철학적 가능성 연구: 존 카푸토(John D. Caputo)의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 연구 중심으로” 『종교와 문화』 제32호 (2017), 29-60.
- 이윤일, 『현대의 철학자들』, 서울: 선학사, 2002.
- Coreth, Emerich, *Grundfragen der Hermenutik*, Herder, Freiburg, 1969. (코레트, 에머리히 지음/ 신귀현 역 『해석학』, 서울: 종로서적, 1985.)
- Caputo, John. / 박규철, 김완종 역 『포스트모던 시대의 철학과 신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6.
- Caputo, John, *Hermeneutics: Fact and Interpretation in the Age of Information*, UK : A Pelican Books, 2018.
- Derrida, Jacques./ 김웅권 역 『그라마톨로지에 대하여』, 서울: 동문선, 2004.
- Derrida, Jacques./ 남수인 역 『글쓰기와 차이』, 서울: 동문선, 2001.
- Gadamer, Hans George/ 이길우, 이선관, 임호일, 한동원 역 『진리와 방법 I』, 서울: 문학동네, 2000.
- Heidegger, Martin/ 이기상 역 『존재와 시간』, 서울: 까치 글방, 1998.
- Heidegger, Martin, 신상희 역 『언어로의 도상에서』, 서울: 나남, 2012.
- Tilich, Paul./ 남성민 역, 『문화의 신학』 서울: IVP, 2018.

논문투고일: 2019년 6월 24일

심사개시일: 2019년 7월 16일

게재확정일: 2019년 8월 12일

---

 • 국 문 초 록 •
 

---

이 논문에서 논자는 전통 해석학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포스트모던 해석학 특징을 카푸토의 하이데거, 가다머, 데리다 해석을 통해 정리하고, 포스트모던 해석학의 한 해석적 실천으로서 카푸토의 ‘약한 신학’을 소개한다. 포스트모던 해석학에서 해석학은 하나의 참된 텍스트의 의미를 발견하는 방법에 한정되지 않는다. 해석은 끝이 없이 수행되는 것이다. 포스트모던 해석학에서는 해석의 외연이 인문학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삶의 전 영역에 미친다고 본다. 또 포스트모던 해석학은 데리다 류의 해체주의도 해석학의 한 변형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포스트모던 해석학은 지금까지 우리가 등한시하거나 배제해왔던 국외자, 외부인, 주변부의 관점을 중시하고, 동일성보다는 차이를 강조한다. 한편, 카푸토의 ‘약한 신학’에서 신은 사건으로 여겨지는 신이다.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완성된 신이 아니라, 미래의 약속으로서 여겨지는 신, 창조성의 가능성으로서 여겨지는 신, 해석적 창조성을 긍정하는 존재로서의 신이다. 이때 신의 이름은 해석학적 명령에 대한 거주어로 기능하면서, 끝없이 재해석 가능한 것을 해석하라는 소리의 아이콘이 된다.

**주제어:** 존 카푸토, 포스트모던 해석학, 하이데거, 가다머, 데리다, 약한 신학

---